신지애 시즌 7승 '최다승 질주'

KLPGA 삼성금융레이디스챔피언십 우승

국내 남녀 프로대회 통산 단일 시즌 대기록

신지애(19·하이마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 최강의 입지를 더욱 다졌다.

신지애는 7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264야드)에서 열린 삼성금융레이디스챔피언십 3일째 최종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시즌 일곱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지난 9월16일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우승으로 한국 남녀프로골프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6승 위업을 달성했던 신지애는 시즌 최다승 기록을 7로 늘렸다.

우승 상금 6천만원을 가져간 신지애는 또 개인 통산 상금 8억6천822만원이 돼 정일미(35·기가골프)가 갖고 있는 최고 기록(8억8천683만원)에 1천861만원 차이로 따라붙게 됐다.

안선주(20·하이마트)가 8,9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8언더파로 신지애와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설 때만 해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안선주가 바로 다음 홀인 10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져 승부가 갈렸다.

안선주의 티샷은 러프에 빠졌고 공을 러프에서 빼내려던 두 번째 샷은 애꿎은 잔디만 때렸다.

세 번째 샷으로 공을 러프에서 빼내는가 싶었지만 다시 공이 러프에 박혔고 4타 만에 공을 러프에서 꺼낸 안선주는 5타째 겨우 온그린에 성공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더블보기 퍼팅을 성공시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다음 조에서 치던 신지애는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순식간에 3타 차 단독 선두가 됐고 이 격차는 다시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만 무려 7타를 줄인 문현희가 2위, 안선주와 서희경(21·하이트)이 공동 3위에 올랐다.

신지애와 같이 챔피언 조에서 치른 조윤희(25)는 4타를 잃어 전날 공동 선두에서 공동 5위로 밀렸고 신은정(27)은 무려 9타를 잃어 공동 3위에서 공동 25위까지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7일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성금융 레이디스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가 트로피를 들며 기뻐하고 있다. /KLPGA 제공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내일 개막

2007 프로야구 가을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준플레이오프(3판 2선승제)가 9일 오후 6시 대전구장에서 개막된다.

■2007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일정

	일정	방식	팀
준플레이오프	10월 9일	2선승제	한화-삼성
플레이오프	10월 14일	3선승제	두산-준플레이오프 승리팀
한국시리즈	10월 22일	4선승제	SK-플레이오프 승리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일합을 겨뤘던 양팀은 1년 만에 준플레이오프에서 재격돌한다. 김인식 감독 부임 이후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강팀으로 탈바꿈한 한화는 작년 삼성에 진 빚을 이번에 설욕하고 1999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시리즈 패권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반면 2005년과 2006년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석권했던 삼성은 선발진 위력이 예년만 못하지만 단기전에서 축적된 경험과 챔피언의 저력을 살려 플레이오프에 오르겠다는 심산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삼성이 10승8패로 앞섰다. 2005년 이후 3년 연속 한화에 5할 이상 승률을 올렸다.

그러나 삼성은 3일 최종전에서 4-2로 이기긴 했으나 직전까지 한화에 5연패를 당한 게 부담스럽다.

한편 플레이오프는 14일부터 정규시즌 2위 두산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간에 3선승제로 열리고, 한국시리즈는 22일부터 1위 SK와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4선승제로 격돌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한화 리그 최종전

포스트시즌 중 갖게될듯

2007년 프로야구가 예상 밖에 길어진 '가을 장마'때문에 정규리그를 완전히 마치지 못한 채 포스트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7일 광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올 시즌 최종전인 한화-KIA 경기는 1회 초가 끝난 뒤 폭우가 쏟아져 끝내 취소되고 말았다.

잔여경기 운영방침에 따르면 8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경기를 가져야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정규리그 3위인 한화가 9일부터 삼성과 준플레이오프(3전 2선승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이례적으로 취소된 경기 일정을 추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전북과 무승부…6강행 '아득'

전남드래곤즈가 '호남 라이벌' 전북 현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 6강 플레이오프 티켓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게 됐다.

전남은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2007 삼성 하우젠 K-리그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3분 산드로의 동점골로 1-1,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7승8무9패(승점 29)로 10위로 내려앉은 전남은 6위 인천(승점 33)가 승점이 4점차로 벌어져 6강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전남과 인천은 각각 2경기씩을 남겨놓고 있다.

이 밖에 광주 상무는 지난 6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과의 대결에서 전반 9분 경남의 '득점기계' 까보레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이로써 광주는 2승6무16패(승점 12)를 기록, 남은 두 경기와 상관없이 최하위가 확정됐다. 14위인 광주는 13위 대구(승점 21)와 승점이 9점차로 벌어져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제이 싱 6언더 우승

한국오픈골프선수권 최종일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이 12년만에 찾은 한국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싱은 7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파71·7천185야드)에서 열린 코오롱-하나은행 제50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2타를 잃었지만 합계 6언더파 278타를 쳐 한국 대표 주자들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렸다.

2라운드부터 선두를 지킨 싱은 1995년 춘천골프장에서 열렸던 아시아투어 패스포트 오픈 우승 이후 12년만에 정상에 오르는 동시에 상금 3억원을 가져갔다.

막판까지 추격을 펼친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3언더파 281타로 공동 4위로 밀렸다.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과 김경태(21·신한은행)도 뒷심을 발휘하며 4라운드에서 3타와 4타를 줄였지만 4언더파 280타로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1라운드 선두로 나섰다가 이후 3라운드 때는 공동 7위까지 밀렸던 양용은은 전반에는 파를 지키다 후반 17번홀(파4)까지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쓸어 담아 4언더파 공동 2위까지 뛰어 올랐다.

양용은은 18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핀 앞 2.5m에 떨어뜨렸지만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오면서 연장 기회를 날려 버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경태 '휴~' 실격 위기 벗어나

2R 호주머니에 볼 넣은 것 논란

조직위 "벌타행위 아니다" 결론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김경태(21·신한은행)가 실격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논란이 된 것은 5일 열렸던 대회 2라운드 16번홀(파3) 상황.

김경태의 티샷이 그린 옆 벙커에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조에 속한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의 볼과 나란히 붙어 버렸다. 김경태는 양용은의 샷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볼 위치를 마크한 뒤 경기를 속개했다.

문제는 김경태가 마크하는 과정에서 볼을 바지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고 이 행동이 골프규칙 21조와 22조에 규정된 "그린 위 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볼을 닦을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김경태의 행동이 '볼을 닦는 행위'에 해당됐다면 1벌타를 받아야 했고 김경태는 이를 모르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했기 때문에 스코어 오기로 실격을 당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제보받은 대회조직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태의 행동은 '볼을 닦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의환 대한골프협회 규칙분과위원장은 "김경태에게 직접 물어보니 당시 한손에는 볼을, 다른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마크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볼을 주머니에 넣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8일〉

▲2007 PGA 발레로 텍사스 오픈 FR (04 : 00·SBS스포츠·SBS골프)

▲2007 메이저리그 AL 디비전 시리즈 3차전〈클리블랜드 : 뉴욕Y〉(07 : 20·X-ports)

▲2007 LPGA 롱스 드럭스 챌린지 FR (08 : 00·SBS골프)

▲2007 메이저리그 AL 디비전 시리즈 4차전〈필라델피아 : 콜로라도〉(10 : 50·X-ports)

▲07/08 프로농구 시범경기〈삼성 : SK〉(18 : 50·SBS스포츠)

〈9일〉

▲2007 메이저리그 AL 디비전 시리즈 4차전〈클리블랜드 : 뉴욕Y〉(06 : 50·X-ports) 〈보스턴 : LA에인절스〉(10 : 20·Xports)